

Closing Keynote	발표일시(한국시간): 2021.12.29(수) 11:00~12:30
How Buddhist Monks and Nuns Solve the Issue of Unethical Christian Conversions	

폐막 기조연설

기독교의 비윤리적 전도에 대한 불교의 방안

헤마 구나틸라카(Hema Goonatilake) / 선우스님

요약문:

오늘날 스리랑카의 불교도들과 힌두교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의 후원을 받고 있는 비영리단체 소속의 미국, 유럽, 한국 등의 기독교 단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점점 더 많이 전도를 한다는 점이다.

불교승려들의 주요 역할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고 보전해야 하는 반면 상담 등 사회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신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일에도 많은 시간을 하례하고 있다.

기독교 권력이 스리랑카의 일부 또는 전 지역을 식민통치 하는 동안 불교는 직간접적인 억압과 부당함에 대해 강인한 인내를 보여주었다. 특히 16C ~ 20C 기독교가 불교에 저지른 만행은 대대적이었으며 전례에 없는 것이었다. 1815 년 영국 기독교에게 완전한 식민통치를 허용했던 캔디언 협약(Kandyan Convention)에서 이루어진 불교 존속을 위한 약속들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가톨릭이었던 초기 포르투갈 통치자들은 불치아가 보전되어 있는 달라다 말리가와(Dalada Maligawa)의 불교 사원의 수입을 말리가와 땅 바로 앞에 성바우로 성당을 짓는데 사용했다. 이곳의 불치아는 싱할라 왕조의 수호신이라고 여겨져 왔었다. 포르투갈인들은 자신들이 스리랑카에 들어오기 이전 당시 수도였던 쾃떼(Kotte)의 유명한 건축물, 불교승방을 파괴하고 기독교 학교를 건립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연간 400 파운드를 불교도들에게 갈취했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불교 센터들을 파괴했다.

현재 수도인 서쪽 지역의 콜롬보에서 참가자-관찰자들과 함께 비윤리적인 기독교의 개종/전도에 반대하는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5 개 사찰에서 각 2 명씩, 법랍 20 년 이상의 지역사회 활동이력을 갖고 있는 10 명의 비구를 선출했다. 5 개 비구니 사찰에서 비슷한 활동이력의 비구니들도 10 명도 선출됐다.

비구들은 사찰 활동과 관계된 일에 책임감이 강했고 젊은 스님들을 관리할 자신이 있었다. 비구니들 또한 비구들 못지않은 책임감과 자신이 있었다. 비구와 비구니 양측 모두 기독교인들이 사회사업프로그램을 통해 ‘영악한’ 방식으로 불교도를 기독교도로 개종시키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동체와 직접 논의하지는 않더라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마을이나 도시 양쪽의 불교 가정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점이 있었고 이러한 비공식적인 활동들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비구니는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비구보다 훨씬 효율적이었다. 그 이유는 여성으로서 비구니는 다사실마타(사미니계)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 공동체와 공감하면서 유대감을 쌓아왔고 특히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나누고 가난한 환경의 여성과 어린이에게 봉사활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이다.

발표자 이력:

헤마 구나틸라카(Hema Goonatilake)

런던대학 소아스대학원(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SOAS)에서 박사 학위 취득. 뉴욕의 유엔에서 젠더 전문가로 활동. 캄보디아 정부의 불교 수석 자문연구원, 인도주의적 지원 조직인 '레드 로터스(Red Lotus)' 창립, 스리랑카 아시아 왕립협회(Royal Asiatic Society) 총장 역임. 여성권익을 홍보하는 '여성의 목소리(Voice of Women)'와 여성연구센터 설립. 스리랑카 과학발전을 위한 사회과학 협회장(Sri Lanka Social Sciences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과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대학봉사회(World University Service)의 스리랑카 대표로 활동.